



## 재한 중국유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은\*\* · 김대성\*\*\*

### Perception and Attitude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Eun Cheong\*\* · Dacheong Jin\*\*\*

#### ABSTRACT

In Korea today, people from various nationalities are studying, with Chinese students comprising the largest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s of 2021. This suggests that the experience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will significantly impact future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developments in China, as well as influence the field of disability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r this purpose, four Chinese students who have been attending various universities in Korea for over two yea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 narrative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to conduct a qualitative study.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what perceptions and attitudes did Chinese students in Korea hold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the students were still in China? Second, have they experienced any changes during their time studying in Korea?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most participants had little direct or indirect contact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hina, leading to limited knowledge or negative perceptions. However, during their stay in Korea, they encountered chang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through direct interaction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in disability-related courses, and exposure to diverse disability-related media.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haped and can change through diverse interactions in daily life. Therefore,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ing Chinese students, develop a healthy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our society must provide them with diverse educational and socio-cultural experiences.

**Key Words** : Chinese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Direct contact, Media, Diverse Interactions

\* 이 논문은 김대성(202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공동저자,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cpe21@hanmail.net)  
Professor, Dept.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 공동저자,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Doctoral Student, Yeungnam University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인식 변화에서 낯선 사람을 알거나 만나게 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Buber(1954)의 만남의 철학 또 Levinas(1998)의 타자의 윤리학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다양한 신경과학 연구결과들 역시 이를 지지한다. 서로 직접적인 눈 맞춤을 비롯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의 ‘얼굴’은 “대상 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범주”라는 것이다(Kandel, 2003: 342).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만 활성화되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영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단순히 상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된다고 한다(같은 책: 349). 인간의 뇌는 이처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담 영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적 표상보다 뇌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같은 책: 36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암시한다(정은, 2024). 그리고 이는 또한 인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영역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생애사적으로 봤을 때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내내 낯선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자신에게 닥친 낯성을 건강하게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정은(2014)은 이러한 입장에서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장애 혹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르다 혹은 낯설다고 느낀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발달장애인의 낯선 행동 혹은 신체적 차이들에 대해 비장애인들은 ‘이질감’이나 ‘낯성’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상호 간의 선의의 호기심을 일깨우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통합교육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불러일으키는 낯성과 이와 관련된 불안에 주목한다(채기화, 2016). 이에 지금까지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장애체험과 같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이 비장애아동들에게 제공되어 왔다(강윤주, 2015). 하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은 많은 한계를 낳았다(정은, 강아름, 2008; 정은, 2011, 2021). 다시 말해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할 경우 장애이해교육은 충분한 효과를

날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지금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다양한 미디어들이 존재하며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은 이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을 거치면서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관련해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황근, 2001). 다양해진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실제로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캠페인, 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장애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간접 경험들은 코로나 19 상황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다. 코로나 시기에 부적절한 혐오 문화가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선자, 2007).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란 간단히 말해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안은영, 이해경, 2022).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법률,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인-비장애인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계속 강조되어왔다(김소영 외, 2018; 정은, 2008).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과의 접촉 시간을 늘림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태도 변화가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류승아, 2012; 안은영, 이해경, 2022).

이렇게 봤을 때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여 건강한 장애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의 경우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된다(Vignes & Grandjean, 2009). 이러한 경험은 장애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吳支奎, 2003), 또한 중국에서의 장애인 문제는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생산력 향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郭建模, 2002).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을 넘어 차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陆广芬, 宋健(2022)).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학생들의 장애인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학생은 한국의 전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sup>1)</sup> 이러한 사실은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향후 중국의 사회, 문화,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장

애인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2년 이상 생활한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낯섬과 수용

1961년 “전체성과 무한”이 출간된 이후 프랑스 철학자 Levinas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의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Levinas는 서양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핵심 개념인 ‘존재’나 ‘실체’, ‘주체’ 또는 ‘자아’ 개념을 ‘아무것도 그것의 외부에서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총체적인 체제’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존재의 관점은 ‘총체성의 이념’에서 파생된다. 그러나 이 ‘총체성의 이념’은 ‘무한성의 이념’과는 구분되는데, 전자가 “순수 이론적”인데 반해, 후자는 “도덕적” 의미를 갖는다(Levinas, 1998: 115). 다시 말해 Levinas가 추구한 것은 ‘이론적인 사유 밖에 있는 것’을 존재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그는 이 ‘사유 밖에 있는 것’을 ‘타자’ 또는 ‘타자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개인이나 그들의 경험에 대한 고유한 존중과 인식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대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계속 변화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존의 의미가 사라짐으로써 일어난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면서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론에서 언급한 코로나 시기의 혐오문화 등장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그렇게 새롭게 생성되는 낯섬에 대한 문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공감과 통합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Levinas가 주장하는 ‘타자성’의 철학은 언급한 것과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자아정체성의 구축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개념적 목표가 중심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돌봄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관계 형성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Levinas(2019)는 타자 존중을 중요하게 보면서 대화적 교육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1) 최근 대한민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만 2,281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2021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67,348명으로 한국의 전체 유학생 152,281명 중 44.2%를 차지하여, 한국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교육부, 2022).

준다. 그는 특히 ‘얼굴’은 눈을 통해 나를 곧장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한다’고 하였다. 즉, 타자가 얼굴을 통해 나타나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통의 근본이라는 것이다(강영안, 2005).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나의 응답을 요청하는 타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는 대화는 타자 존중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다(노상우, 권희숙, 2010).

한편 Buber(1954, 2007)는 관계의 개념에서 인간의 위치와 본질을 파악한 철학자이다. 그는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비인간화 현상이며 이러한 현대 사회의 위기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 상실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Buber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주요한 태도를 두 가지 모습으로 파악하고 근원어(Grund-worte)인 ‘나-그것’과 ‘나-너’로 구분하였다. ‘나-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인 사물 세계로 인간이 타인을 도구적 존재인 그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나-너의 관계는 참된 만남의 세계로 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교류 작용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Buber의 인식에 따르면 ‘나’ 자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너-나-그것’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만이 있을 뿐이다(오기성, 2019).

이러한 관점에서 Buber는 변화란 ‘나-그것’에서 ‘나-너’ 관계로, 혹은 ‘나-그것’에서 ‘나-너’의 관계로 변화하는 찰나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Buber는 타인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방향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방향성의 측면에서 관계를 설명하였다(Buber, 2001). 이런 맥락에서 강선보(1988)는 Buber의 ‘나-너’, ‘나-그것’ 관계는 삶의 전체성과 통일성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결국 삶은 두 가지 태도를 포용해야 하는데 이를 “합리적 모순율(rational law of contradiction)에 따른 포용”이라고 설명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너’의 관계와 ‘나-그것’의 관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너’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너’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너’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Levinas, Buber 모두가 진정한 인간화를 위해 강조한 “만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관계 본질의 회복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Bedford, 1972: 303), 그 만남은 경청을 넘어서 타자에게 진실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전제로 한 “진정한 대화”여야 할 것이다(신현기, 2014: 125).

## 2. 미디어 속의 장애인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다수자인 비장애인 시각적 코드에 맞추어 별개의 존재, 문체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 속 장애인은 주로 의료 관련 기

사나 보험과 같은 광고 영상에 자주 노출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의 영향력은 항상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사고방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경우 장애인이 겪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은 그때그때마다의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Oliver, 1990).

미디어는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의 '타고난 결함'을 부각시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수혜 대상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크다(박홍근, 2017).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속의 장애 또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되고 생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HBO 드라마 <Game of Throne>의 Peter Dinklage(티리온 라니스터 역)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수자 영화배우로, 135cm의 선천적 저신장 배우지만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와 다양한 표정 연기를 통해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었다.<sup>2)</sup> 또한 영국 BBC에서는 선천적으로 오른 쪽 팔뚝과 손이 없는 루시 마틴(Lucy Martin)이 BBC뉴스 메인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호주 ABC방송은 <You Can't Ask Tha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여러 관점에서 등장시킴으로써 그들 또한 평범한 한 인간임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Sesame Street>는 2017년 4월부터 자폐증을 가진 Julia를 데뷔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아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스트리아 FOX TV의 경연 프로그램인 <The Voice Australia>에 출연한 McCallum 또한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덧붙여 같은 프로그램에서 2011년에 진행된 <Masterchef>에서는 뇌성마비를 가진 John Hughes가 비장애인들과 대등한 요리 경연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강진숙, 김동명, 2019). 이렇듯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형태로 장애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드라마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영화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따윈 필요없어>(2006)나 <블라인드>(2011)처럼 주인공인 장애여성은 남성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 대상으로 묘사되거나(박홍근, 2017), <도가니>(2011)와 같이 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일어난 사회적 이슈를 영화화한 경우처럼 여전히 한국 미디어 속 장애인은 대부분 보호대상 혹은 피해자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해결사 역할을 하거나, 주요 역할로 소개되는 영화도 존재한다(김형태, 2010).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상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미디어가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이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하여 기존의 편견적 사고를 멈

2) 그는 또한 2018년 개봉한 <Avengers: Infinity War>에서는 거인으로 등장하여 많은 영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Peter Dinklage의 등장은 항상 수동적인 요정이나 우스꽝스러운 난장이들로 표현되었던 저신장 장애인들의 영화 속 이미지를 크게 변화시켰다(강진숙, 김동명, 2019).

추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있어 왔다(Gray, 2009).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데 미디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양정혜, 노수진, 2012). 하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초기에는 각종 학술 세미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해 활발한 인권 및 학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또한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 재현 관련 모니터링보고서 작업이 2007년에 멈춰 있다. 미디어에 비추어진 장애인 인권 개선 세미나도 2008년 이후 그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들이 병마와 싸워 영웅적 승리를 거뒀다는 시나리오는 비장애인들에게 교훈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만 사용되며, 더욱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장면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양정혜, 노수진, 2012).<sup>3)</sup>

이런 맥락에서 고춘환은 '삶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장애인의 삶을 새롭게 바라본 것을 요구한다. '삶권력'이란 모든 사람의 '삶전체'를 남김없이 통째로 대상으로 삼는 권력관계를 뜻하는데, 장애인의 신체를 다수자의 논리에서 규정하고 규율하는 삶권력의 발현은 '일반적'이라는 가치관을 장애인에게 강요하고 훈육하며 그들을 타자화한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침잠해 있는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훈육질서와 같은 삶권력에 대항하는 삶정치적 저항으로서 장애인운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데, 탈시설화 요구,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도 폐지, 이동권 투쟁운동 등이 바로 그러한 삶권력의 예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다. 또한 자기결정성과 주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자조주의와 탈의료화운동, 장애인 시민권운동 등 삶권력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의 자조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춘환, 2005).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정치와 주체성을 지향하는 실천들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와 비장애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갈수록 넓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디어 속 장애인의 모습도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선행연구 고찰

한국에서 진행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는 주로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로, 중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또래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조사한 것이 다수를 이룬다. 이는 현재 통합교육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권주

3) 해외의 경우도 장애인 여성의 출산 과정, 그리고 육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과정을 미디어에 담아 비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삶이 평범한 삶과 대치되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여 오히려 잘못된 사고를 파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었다(Metcalf, 2002).

석, 2002; 조소이, 2014; 최세민, 김희규, 2002). 또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본 비교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독일 대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기홍, 2002). 한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최국환, 2000)에서는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경험과 장애인 편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영숙, 2002),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유용식, 2005),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감정기, 2010; O'Connell, 2017), 장애인의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박재국, 2016; Kendall, 2018),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김예순 외, 2015; 차세진, 황순영, 2018)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집중하였다. 또 영향 요인으로는 주로 성별(박미희, 권희경, 2013), 나이(최성규 외, 2008), 전공(김정현, 박현옥, 2016), 가족 또는 친구 중 장애인의 유무(김민경, 박재국, 2018), 장애인과의 접촉경험(류승아, 2001, 2010, 2012; 이유필, 2015; Falanga & Caroli, 2011) 등이었다.

한편, 이제까지 진행된 중국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강조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은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이다(张万洪, 丁鹏, 2008). 선행연구들은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경험인지가 중요하며, 간접적일 때보다는 직접적이고, 단순할 때보다는 계획적 경험일 때가 더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张万洪, 丁鹏, 2008). 李硕(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중학생의 공감능력과 장애학생 수용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도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林金定 등(2009)은 비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에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의 요인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刘峰, 张国礼(2013) 역시 장애인과의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책, 전화, 인터넷, 타인 등) 방식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촉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 하는 것이 더욱 효과

적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식이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와 같은 분야뿐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란 연구대상의 행동, 언어, 생각 등을 연구자의 눈을 통해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의미나 동기를 밝혀내고 그 행태의 사실과 함의를 찾는 방법이다(Mariampolski, 2001).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한국에서 2년 이상 생활한 중국유학생으로, SNS나 인터넷 광고, 또 중국유학생이 재학 중인 여러 대학의 학과에 연락하여 연구의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나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또 전공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년, 4년, 7년, 8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 중인 4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로 전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전공	나이	한국체류기간	대학	학년
A	도시계획학	29세	2년	가 대학교	박사 3학년
B	국어국문학	24세	4년	나 대학교	학부 4학년
C	컴퓨터교육학	27세	7년	다 대학교	석사 3학년
D	미디어&엔터테인먼트	27세	8년	라 대학교	석사 4학년

####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탐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Clandinin과 Connelly(2007)이 제시한 5단계의 절차를 밟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단계 및 절차

연구단계	내용	기간
1. 현장에 들어가기	- 연구참여자 선정하기 - 연구일정 정하기 - 문헌연구, IRB심의 완료, 내러티브 탐구	2023년 5월-7월
2. 현장에서 텍스트로 이동하기	- 예비면담(SNS나 영상 통화를 통해 교류) - 본 면담(1:1 개별면담, 질문지 활용의 심층면담) - 녹음, 현장 기록 등의 자료수집	2023년 7월-8월
3.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 면담 내용의 정리와 분석 -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2023년 7월-9월
4. 연구텍스트 구성하기	- 현장텍스트 반복적으로 읽고 해석하기 - 경험에 대한 의미구성하기 - 연구참여자들과 내러티브 공유하기 -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화로 구성하기	2023년 9월-11월
5. 연구텍스트 완성하기	- 연구텍스트 내용 반복 확인하기 - 연구논문 완성하기	2023년 9월-11월

또한 본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질문지는 선행연구(林金定 등, 2009; 张万洪 등, 2008; 김기홍, 2002; 최국환, 2000)를 참고하여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과 개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관찰, 면담 노트, 녹음),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3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연구참여자별로 3-4회 진행하였으며 차시별 소요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였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료의 정확성 확인, 가능한 철저하고 완벽한 분석,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이다(Yin, 2014).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검증하고자 정리한 자료를 각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하였다(7002016-A-2023-123).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만들어진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의 과정을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3>는 현장텍스트를 활용하여 정리한 연구결과의 주제 분석표이다.

<표 3>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주제 분석표

연구문제	참여자	하위주제
1. 중국에 있을 때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A	장애인에 대해 잘 몰라요
		장애 관련 수업을 듣게 되다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해요
	B	장애인과 직접 경험은 없었지만 알고 싶다
		장애인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요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C	장애는 사회적 문제다
		장애인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D	장애인의 삶을 몰라요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을 처음 알게 되다
		장애인에게서 거리감을 느꼈어요
	2. 한국에서 유학생생활하면서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A
장애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준 다양한 경험들		
B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적극 참여하다
C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직접 만나다
		장애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배우게 되다
D		장애 관련 강의를 듣고 인식이 변하다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한 변화

### 1. 중국에 있을 때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이하 A)는 말수가 많지 않은 조용한 성격으로 보였다. A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경험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으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A는 중국에서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장애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중학교 시절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지식을 간략하게 배웠으며, 장애인의 유형과 관련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 (1) 장애인에 대해 잘 몰라요

A는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다. 장애인에 대해 막연히 동정심은 느꼈지만, 주도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하거나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가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관련 영상이나 뉴스에 장애인이 언급되었을 때만 잠시 관심을 가지고, 친구나 가족들과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장애인을 만나면 당황스러울 것 같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하였다.

중국에 있을 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배웠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장애인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TV나 휴대폰으로 뉴스 보도와 촬영한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예요. 장애인에 대해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마음속에 대해 더 알고 싶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소통하고 어울려야 할지 몰라서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랑 소통하면 무심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예요(A, 1차면담, 2023년 5월 23일).

장애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말 같은 거 잘 못해서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중국에서 장애인 관련 활동을 참여하지 않았어요(A, 1차면담, 2023년 5월 23일).

A는 이처럼 중국에 있었을 때 머리로는 장애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지만, 장애인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 (2) 장애 관련 수업을 듣게 되다

A가 중국에서 중학교에 다녔을 당시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이해 관련 수업이 도입되었고, 이때 A는 처음으로 장애인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경험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하였다. A는 장애와 관련된 수업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중학교 때 학교에 장애와 관련된 수업이 생겼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장애인들이 불쌍하다고 느꼈지만 수업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되면서 그들에 대해 정말 존경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신체적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수업은 나에게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A, 2차면담, 2023년 6월 8일).

이처럼 중학교 시절 우연히 접하게 된 장애 관련 수업이 A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A는 이 수업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해요

A는 중국에 있을 때 TV와 휴대폰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수업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 A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사회가 장애인에게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의 필요에 대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지금은 인권의 시대예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인권에 기반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장애와 장애인을 알게 된 후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보장을 걱정이 되었어요. 내 생각에는 일반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해요(A, 3차면담, 2023년 7월 19일).

A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장애인,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인권에 기반으로 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2)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이하 B)는 이전에 낯선 사람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B에게 연구와 관련된 주제와 질문을 반복해서 설명하였고, B도 차츰 이 인터뷰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B는 심층 면담 때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유학한 후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본인의 감정과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연구자의 질문과 연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갔다. 또한, 자기 경험이 연구에 활용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 (1) 장애인과의 직접 경험은 없었지만 알고 싶다

B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B는 자신이 중국에 있었을 때 가졌던 장애인식이 중국의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 B는 중국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장애인 관련 기억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저의 시각은 주로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장애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고,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주로 주변 사회의 태도와 중국 문화의 전통적인 관념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접촉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잖아요(B, 1차면담, 2023년 6월 11일).

제 생각에 중국의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제 태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관점은 실제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서 편협한 견해라고 생각했어요(B, 1차면담, 2023년 6월 11일).

B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바쁜 학업으로 인해 장애 또 장애인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후 성인이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나간 것 같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때 저의 주요한 관심사는 학업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었어요.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었지만 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통해 시야를 넓혀서 더 전면적으로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B, 1차면담, 2023년 6월 11일).

이처럼 B는 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호기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에 대해 알고자 했던 욕구가 이후 사회생활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야를 넓혀나가는 데도 적절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 (2) 장애인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요

B는 중국에 있었을 때 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역시 그저 표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 B는 장애인을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생활했을 때 제가 장애에 대한 이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다수 사람들처럼 장애인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장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주요 정보였기 때문이에요(B, 2차면담, 2023년 7월 16일).

B는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신체적 차이가 있는 사람이고, 비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도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연장선에서 B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직면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주로 사회의 보편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폭도 좁았고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저는 장애인의 신체적 차이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을 무시했어요(B, 2차면담, 2023년 7월 16일).

그때는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없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어요. 이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방식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없었고 그들의 직면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인식하지 못했어요(B, 2차면담, 2023년 7월 16일).

B는 이처럼 중국에 있을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었고, 장애인의 다양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다.

### (3)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B는 중국 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 아래 살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에 의문을 가졌다고 하였다. B의 생각에는 사회가 장애인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달리 평등하지 않고, 장애인을 특별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장애인 차별은 여러 방면에 연관되어 있어서 사회와 일상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저는 옛날에 사회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차별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사회가 장애인을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고, 그들을 특별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러한 차별은 여러 방면에 연관되고 있고 이런 차별은 사회와 일상생활 등의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어요(B, 3차면담, 2023년 8월 2일).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의 차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계적 사고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차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B, 3차면담, 2023년 8월 2일).

이처럼 B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무지나 오해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

성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3)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이하 C)는 이전에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C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많이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C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었다.

#### (1) 장애는 사회적 문제다

C는 중국에서 장애인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없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장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또한 C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애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문제로서 장애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받은 경험을 통해 저는 장애인들의 삶과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장애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한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회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포용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어요(C, 1차면담, 2023년 8월 1일).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애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관련 뉴스와 기사를 찾아봤고,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읽기도 했어요.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최신 동향을 파악했으며, 사회적 문제로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어요(C, 1차면담, 2023년 8월 1일).

인터뷰하는 내내 C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C는 이러한 교육 경험과 정보 습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 (2) 장애인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C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정도였다. C는 자신이 중국에 있을 때 가졌던 장애인식은 중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사회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크게 강조되는 곳이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C에게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다고 하였다.

제가 중국에서 살았을 때 장애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사실 많이 단순했어요. 그때 저는 장애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봤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중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이에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모두가 서로를 돕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이 강조되는 곳이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제가 장애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C, 2차면담, 2023년 8월 11일).

C의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장애인 인식 형성에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에서의 교육 과정이다. C는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고 했다. 이런 교육이 C의 장애인 인식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관점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접적인 장애인 접촉 경험이 없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경우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이론적이나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C는 장애인을 다양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에서의 교육 과정도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은 장애인들의 삶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제가 장애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예요(C, 2차면담, 2023년 8월 11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과의 접촉이 없었기에, 장애인들을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 모두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C, 2차면담, 2023년 8월 11일).

C의 사례는 한 사회(여기서는 중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 교육 과정, 그리고 직접적인 장애인 접촉 경험의 부재 등이 해당 사회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 4)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이하 D)는 중국에서 사는 동안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뉴스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 그의 인식은 장애인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들의 행동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D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1) 장애인의 삶을 몰라요

D는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었다. 이는 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였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그들이 직면하는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던 동안, 제게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요. 이 경험의 부재는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그들의 실제 삶이나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는 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했고 그들의 삶에 대한 제 실질적인 이해를 방해했어요(D, 1차면담, 2023년 5월 29일).

하지만 이를 통해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졌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D, 1차면담, 2023년 5월 29일).

D는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이것을 자각함으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장애인과의 접촉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상태로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D의 경우처럼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을 처음 알게 되다

D는 초등학교 때 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뉴스에서는 주로 장애인을 불쌍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를 통해 D는 장애인들에 대해 소원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 뉴스를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가진 인식은 장애인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었어요. 이런 생각은 제가 중국에서의 사는 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D, 2차면담, 2023년 6월 14일).

중국 뉴스에서는 주로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많았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장애인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D, 2차면담, 2023년 6월 14일).

D의 경우처럼 대중매체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장애인에게서 거리감을 느꼈어요

D는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D의 이런 인식 형성에는 뉴스나 인터넷 등의 매체가 큰 역할을 했다.

중국에 있었을 때 저는 뉴스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 매체들에서는 주로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보여주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장애인들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 그렇게 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형성되어갔는데, 이는 사실 후에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그저 보여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죠(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무의식 중에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느꼈던 '사회적 거리감'이에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D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중매체의 정확하지 않는 장애 관련 이미지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불필요한 연민이나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 2.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연구참여자 A

#### (1) 장애인식 변화를 통한 인생가치관의 확장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 A(이하 A)는 한국에 온 지 2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다. A는 한국에 와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관련 강의를 많이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의 인식이 크게 변했다고 하였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받았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에 대한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에서 멈춰있었어요(A, 2차면담, 2023년 6월 8일).

한국에 와서부터는 저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이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제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어요. 장애인이라는 그룹을 단지 권리와 필요에 대한 지원의 대상이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A, 2차면담, 2023년 6월 8일).

A는 장애인 관련 강의를 들은 후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후 스스로 장애인 관련 뉴스와 동영상 등을 찾아보며 그들의 삶과 경험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 이러한 변화는 제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연민을 갖게 되었어요. 이는 사회적 포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단지 권리와 필요에 대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A, 2차면담, 2023년 6월 8일).

앞으로도 저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지켜보고 연구하겠어요. 이는 제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중 하나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삶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이는 제가 앞으로 추구하려는 가치와 목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A, 2차면담, 2023년 6월 8일).

A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강의 참여와 같은 학습 경험이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장애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준 다양한 경험들

A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경험들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의 교육 및 학습 경험이다. 이러한 교육 경험은 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제 인식이 크게 변했어요. 그 강의를 제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A, 3차면담, 2023년 7월 19일).

둘째,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체험이다. 그는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뉴스와 동영상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과 경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연민을 갖게 되었다. A는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체험이 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장애인에 대한 뉴스와 동영상 등에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 정보들은 장애인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특히,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는 제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A, 3차면담, 2023년 7월 19일).

셋째,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A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식당에서 장애인을 만난 것,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 참석 등의 경험을 통해 저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단지 권리와 필요에 대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 이 변화는 장애인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의 문화,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A, 3차면담, 2023년 7월 19일).

이제 저는 장애인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포용에 대한 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저는 장애인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는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A, 3차면담, 2023년 7월 19일).

이처럼 A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장애인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A의 이야기 안에는 그가 장애인의 존재와 그들의 의견이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더하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 2) 연구참여자 B

### (1) 장애인의 권익개선에 기여하고 싶다

연구참여자 B(이하 B)는 한국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 중인 중국유학생으로, 한국에서 4년 이상을 생활하였다.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나 교육경험이 없어서 장애인을 단지 몸이 불편한 대상으로만 인식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애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장애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하여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단순히 몸이 불편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곤 했어요. (...) 하지만 한국으로 온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애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때부터 제가 장애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제는 장애인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어요(B, 2차면담, 2023년 7월 16일).

현재 B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제가 장애에 대한 인식 촉진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 싶어요(B, 2차면담, 2023년 7월 16일).

B의 경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 (2)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적극 참여하다

B는 한국에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애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영화는 B

에게 장애인의 삶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B는 자신이 장애와 관련된 교육경험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B는 이를 계기로 이후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제가 장애인에 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인식 변화는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토론은 저에게 장애인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어요(B, 3차면담, 2023년 8월 2일).

B는 이제 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문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 3) 연구참여자 C

#### (1)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직접 만나다

연구참여자 C(이하 C)의 경우 중국에서는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었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C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실제로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유학한 후에 저는 장애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겪었어요. 중국에서는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었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였지만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실제로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장애인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어와 점자를 열심히 배워 장애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C, 2차면담, 2023년 8월 11일).

이처럼 C는 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겪었다. C는 장애인들을 돕는 데 있어서 행동과 소통, 이해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마음 상태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장애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C, 2차면담, 2023년 8월 11일).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과 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장애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애인들을 경멸하거나 비웃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C, 2차면담, 2023년 8월 11일).

C는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어와 점자도 열심히 배웠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에 온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장애인들을 만나면 행동으로만 도움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의 유학하면서 장애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장애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배우게 되다

C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전의 제한적인 시각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했고 그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에 참여하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스포츠시설 및 본회 관련 대회에서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큰 변화를 하게 되었어요(C, 3차면담, 2023년 8월 20일).

청각장애인에 대해 대화할 때는 정면에서 입을 크게 천천히 말하거나, 필담을 통해 글을 써서 대화하거나, 수화를 통해 약속된 손놀림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한, 지적장애인과 상호작용에서는 그들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쉬운 일부부터 반복해서 알려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배웠어요(C, 3차면담, 2023년 8월 20일).

장애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존중받고 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도 하나의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C, 3차면담, 2023년 8월 20일).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C는 그들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장애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즐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C는 장애인들이 가진 내적인 힘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C가 얻은 가장 큰 소감은 장애인들이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도 행복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C는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그들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 이제 C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장애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장애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즐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태도와 강인함은 제게 큰 용기와 힘을 준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하면서 저는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알았어요(C, 3차면담, 2023년 8월 20일).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소감은 장애인들이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도 행복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장애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C, 3차면담, 2023년 8월 20일).

C는 이처럼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향한 의지로 연결되고 있었다.

#### 4) 연구참여자 D

##### (1) 장애 관련 강의를 듣고 인식이 변하다

연구참여자 D(이하 D)는 한국에 오기 전에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서 우연히 장애에 관한 강의를 한 번 듣게 되었고 이 경험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뉴스를

통해 장애와 장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이런 인간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D, 2차면담, 2023년 6월 14일).

한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장애에 관한 강의를 한 번 들어봤어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갔고, 장애인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었어요(D, 2차면담, 2023년 6월 14일).

D는 아직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은 없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잘못된 장애인관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는 아직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은 없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바르지 않은 장애인관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D, 2차면담, 2023년 6월 14일).

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D, 2차면담, 2023년 6월 14일).

D는 이러한 인식변화를 겪으며 장애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며, 따라서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한 변화

D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촉발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영향이다. 한국에서 유학하며 장애에 관한 강의를 들은 것이 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D는 장애인에 대한 더 깊고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강의를 통해 제 생각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 장애인들이 저희와 다르지 않고, 그저 사회적 환경과 생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저희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해를 통해 제

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과 오해가 깨졌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둘째,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에 대한 반성적 성찰(자각)이다. D는 아직 장애인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그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애인과의 접촉 부재에 대한 자각은 D가 장애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저에게는 아직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런 점이 저에게는 큰 아쉬움이기도 해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경험의 부재가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어요. 저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는 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잘못된 장애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시작점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장애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어요. 그 강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셋째, 개인적 가치관과 노력의 중요성이다. D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잘못된 장애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가치관은 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는 제가 가진 개인적인 관점이고, 제 일상생활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장애인들은 저희와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희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들을 여전히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노력은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더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해요(D, 3차면담, 2023년 8월 29일).

D는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D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노력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있다고 하였다.

## V. 논의 및 제언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중국에 있었을 때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부분(연구참여자 A, B, D)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부족했던 것, 또 장애이해교육과 같은 장애관련 간접경험도 부족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에서 학창시절 장애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한 연구참여자 C가 장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류승아(2001, 2010, 2012), 안은경, 이혜경(2022), 한영숙(2002)의 연구내용과 같이 장애인 접촉경험이 장애인 인식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없더라도 미디어나 학창시절 장애 관련 수업 경험과 같은 간접경험도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소이(2014)의 연구내용과 같이 장애수용태도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통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봉사활동과 같은 직접경험 또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 관람, 토론 참여 등의 간접적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변화한 장애인식을 토대로 향후 장애인 인권이나 제도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용식(2005)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를 보인 것은 한국의 교육 환경, 문화, 그리고 개인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刘峰, 张国礼(2013)와 한영숙(2002)이 지적하였듯이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간접적인 접촉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장애인과의 직/간접접촉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장애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하였고, 장애 관련 강의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장애인 관련 미디어를 접하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재한 중국유학생 4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모든 유학생의 경우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고 또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유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건강한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는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정기 (2010).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고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영국 DDA의 경험과 그 시사점. **장애와 고용**, 20(1), 105-128.
- 강선보 (1988). 마르틴 부버의 교육관에 투영된 교사-학생간의 관계본질. **한학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3-7.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
- 강윤주 (2015). 비장애 학생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경험에 관한연구. **재활복지**, 19(4), 159-181.
- 강진숙, 김동명 (2019). 장애인 관련 영상제작자 및 활동가들의 '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구. **한국언론학보**, 63(1), 286-324.
- 권주석 (2002).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및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의 지역별 차이에 따른 교육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6(4), 51-75.
- 김기홍 (2002). 지체장애인에 대한 독일과 한국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4), 51-75.
- 김민경, 박재국 (2018).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통합교육연구**, 13(2), 49-72.

- 김소영, 임소희, 송효숙 (2018). 간호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339-347.
- 김예순, 백형원, 남영희, 김선용, 김명 (2015). 보건학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185-201.
- 김정현, 박현옥 (2016). 지적 장애인의 성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발달장애연구**, 20(4), 79-101.
- 김형태 (2010). 미디어속의 장애인의 모습. **초암네트웍스**, 24(3), 108-113.
- 노상우, 권희숙 (2010). Buber와 Levinas의 “관계의 철학”에 내포된 교육적 함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2), 47-67.
- 류승아 (2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아 (2010).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 복귀는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 일반**, 29(1), 49-69.
- 류승아 (2012). 정신장애인과외의 접촉경험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22(1), 51-70.
- 박미희, 권희경 (2013). 대학생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생애학회지**, 3(2), 51-71.
- 박재국 (2016).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자립생활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4), 21-42.
- 박홍근 (2017). 영화에서 재현되는 시각장애인의 이미지와 성차 :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423-451.
- 유용식 (2005).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3, 143-174.
- 이유필 (2015).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 태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기 (2014). 마르틴 부버의 “만남”의 철학에 기반한 장애이해교육의 재구성. **지적장애연구**, 16(2), 107-133.
- 안은영, 이해경 (2022).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9(2), 205-219.
- 양정혜, 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3), 371-415.
- 오기성 (2019). 부버(Martin Buber)의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 **교육논총**, 39(2), 317-337.
- 이선자 (2007).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7, 77-111.
- 정은 (2008).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장애아동의 인성발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325-345.
- 정은, 강아름 (2008).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교육적 이해.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109-127.
- 정은 (2011). 특수교육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311-336.
- 정은 (2014). 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기억과 전망**, 30, 52-90.
- 정은 (2021). ‘있는 그대로’에 대한 통찰: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학적 교육방법론 고민하기.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3-18.

- 정은 (2024). **이웃교육과 장애**.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조소이 (2014).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세진, 황순영 (2018).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태도 및 영향요인 분석. **지체·증복·건강장애연구**, 61(3), 1-22.
- 채기화 (2016). 장애가 불러일으키는 “낯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상호이해를 위한 정신내적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6(3), 270-293.
- 최국환 (2000). 한국 재활기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직업재활연구**, 10(2), 81-91.
- 최성규, 오원석, 송혜경, 주미영 (2008). 지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지적장애연구**, 10(1), 185-205.
- 최세민, 김희규 (2002). 장애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수용태도. **유아특수교육연구**, 2(1), 121-134.
- 한영숙 (2002).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경험과 장애인 편견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황근 (200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대상 방송에 대한 평가. 장애인 대상 방송 TV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1-90.
- 郭建模 (2002). **残疾人工作基本知识读本**. 北京: 华夏出版社.
- 李硕 (2018). 初中生自尊与亲社会行为的关系研究: 共情的中介作用.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 林金定, 许佑任, 吴佳玲, 陈美花 (2009). 国小学童对智能障碍者之认知态度与接触经验初探身. **心障碍研究**, 7, 64-79.
- 刘峰, 张国礼 (2013). 初普小学生对随班就读弱智生内隐污名的干预研究. **中国特殊教育**, 5, 7-12.
- 吴支奎 (2003). 关于普小学生对随班就读弱智生接纳态度的研究. **中国特殊教育**, 2, 16-22.
- 张万洪, 丁鹏 (2008). 中国残疾人事业法治建设三十年之回眸与前瞻. 残疾人研究.
- 陆广芬, 宋健 (2022). 大学生对残疾人的认识与态度研究—以T校为例, **中文科技期刊数据库教育科学**, 9, 122-126.
- Bedlford, M. (1972). *Existentialism and Creativit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Buber, M. (2001). *너와 나*(표재명 역). 서울: 문예출판사.
- Buber, M. (2007). *인간의 문제*(윤석빈 역). 서울: 길.
- Buber, M. (1954). *Between Man and Man*. Routledge & Kegan Paul.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형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Falanga, R. & De Caroli, M. E. (2011). Attitudes towards disability: The experience of “contact” in a sample of Itali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Educational Psychology: INFAD. Revista de Psicología*, 4(1), 91-100.
- Gray, C. (2009). Narratives of Disability and the Movement for Deficiency to Difference. *Cultural Sociology*, 3, 317-332.
- Kandel, E. (2015). *통찰의 시대*(이한음 역). 서울: RHK.
- Kendall, L. (2018).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in a UK university: Lecturer

- perspectives.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55(6), 694-703.
- Levinas. E. (1998). *시간과 타자*(강영안 역). 서울: 문예출판사.
- Levinas. E. (2019). *전체성과 무한*(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역). 서울: 그린비.
- Mariampolski, H. (2001). *Qualitative Market Research*. SAGE Publications.
- Metcalf, F. (2002). Tears of Courage. *the Courier Mail*, 4-5.
- O'Connell, K. (2017). Should we take the 'disability' out of discrimination laws?: Students with challenging behaviour an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Law in Context*, 35(2), 108-128.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the Macmillan Press.
- Vignes, C. & Grandjean, H. (2009). Determinants of student's attitudes peers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51, 473-479.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Ed.). CA: Sage.

<국문 초록>

## 재한 중국유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은 · 김대성

현재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유학생은 2021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이 향후 중국의 사회, 문화, 교육 발전, 아울러 장애인 교육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이며, 다양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재한 중국유학생이 중국에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지 또 둘째,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장애인과의 직/간접접촉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장애인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장애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하였고, 장애 관련 강의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장애인 관련 미디어를 접하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 관련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며 또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건강한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는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유학생, 장애인 인식 및 태도, 직접 접촉, 미디어, 다양한 상호작용

논문 접수(Received): 2024. 11. 12. / 심사 시작(Examined): 2024. 11. 12. / 게재 확정(Accepted): 2024. 12. 03.